

독도 지킴이 ‘독도의용수비대’



독도의용수비대

독도의용수비대는 홍순철 외 32명의 대한민국제
대장병보도회 및 대한상이용사회 울릉군 분회
주민들이 독도를 방위하고자 자발적으로 조직한
민간인 경비대이다.

1953년 2월, 독도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울릉도 어민이 그
곳에서 한 낚시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낚시에는 ‘시마네
현 오키군 다케시마’ 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었다,
이것은 일본이 한국이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1948
년 미군의 폭격 연습 과정에서 희생된 한국 어부의 위령비
를 파괴하고 독도에 세운 표지판 이었다.
이를 발견한 어민들이 울릉경찰서에 신고하여 낚시를 즉시
철거하도록 하였지만 철거 후에도 일본은 남몰래 독도를
침입하여 일본 영토 낚시로 바꾸어놓는 행위를 저질렀다.
하지만 이 시기에 대한민국은 6.25전쟁으로 인해 독도를
지킬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때, 울릉도 출신의 민간인 홍순철은 우리 땅 독도를 직접
지켜내기로 결심했고 1953년 4월, 울릉도 청년 45명과 함
께 독도의용수비대를 조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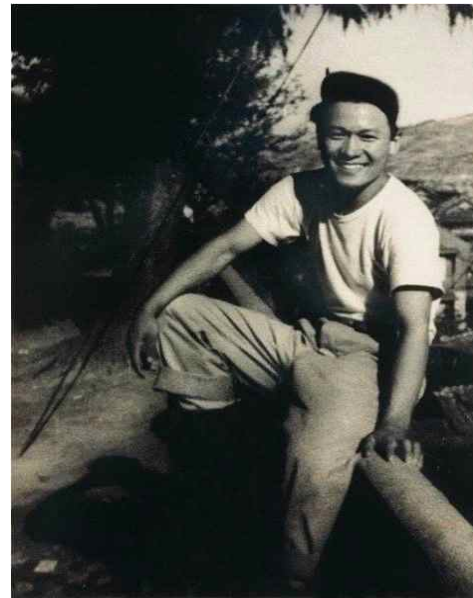
독도의용수비대 구성원

독도의용수비대는 홍순철 대장을 비롯한 울릉도
청년 4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도의용수비대는 홍순철을 비롯해 15명으로 구성된 전투
대 2조와 울릉도 보급 연락요원 3명, 예비대 5명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수비대 대장은 홍순철, 부대장은 황연문, 제
1,2 전투대 대장은 서기종과 정원도, 후방지원대 대장은 김
병열, 교육대 대장은 유원식, 보급대 대장은 김인갑으로 구
성되어 있다.

독도수비대장이 된 특무상사 홍순철

울릉도로 귀향한 홍순철은 울릉경찰서 마당 한
쪽에 ‘시네마현 오키군 다케시마’ 라고 쓴 표목
이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독도를 지키기로
결심했다.



홍순철 대장

민간인으로 구성된 독도의용수비대 대장 홍순철은
1929년 울릉도에서 태어났다. 홍순철은 어릴 때부터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라는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다. 그는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국군에 입대하였다. 그는
함경북도 청진까지 진격하였다가 원산근처에서 부상을
당하고 1952년 특무상사로 전역하였다.
1952년 7월, 울릉도로 귀향한 홍순철은 울릉경찰서 마당
한 쪽에 ‘시네마현 오키군 다케시마’ 라고 쓴 표목이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독도를 지키기로 결심했다.

1953년 4월 20일 사재를 털어 무기 등 장비를 구입하고
군에서 제대한 청년들을 규합하여 독도의용수비대를
조직하였다. 4월 말 독도수비대를 이끌고 독도에 첫
상륙한 이후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퇴거하기 위해
수차례 총격전을 벌였다. 독도 주변을 향해하던 일본
수산고등학교 실습선도 귀향시켰다. 정부 차원의 부족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홍순철과 독도의용수비대 32명은 3년
8개월간 독도를 지켜냈다. 1956년 12월 30일 홍순철
일행은 무기와 독도 수비임무를 경찰에게 인계하고
울릉도로 돌아갔다. 그 후에도 홍순철은 독도의용수비대
동지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푸른 독도 가꾸기에
앞장섰다. 1986년 2월 57세로 별세하자 정부에서 5등
근무공로훈장과 보국훈장 삼일장을 추서하였다.

수리 팟 독도 이야기 제 4호

2018년 6월 29일 화요일

발행처 신서고 하누리

독도를 지키는 독도경비대



바다를 지키는 독도 경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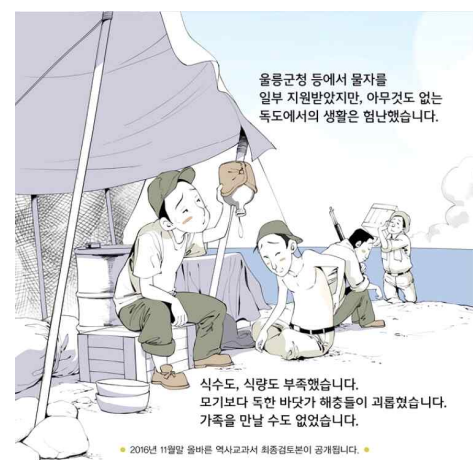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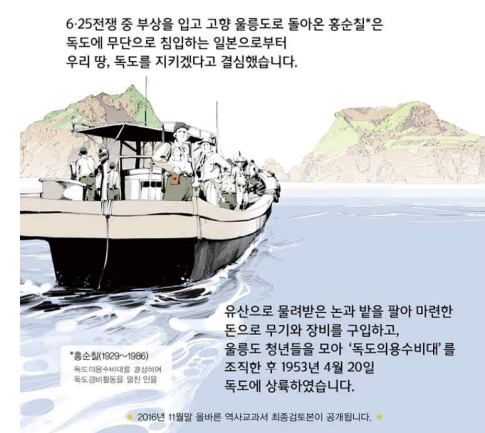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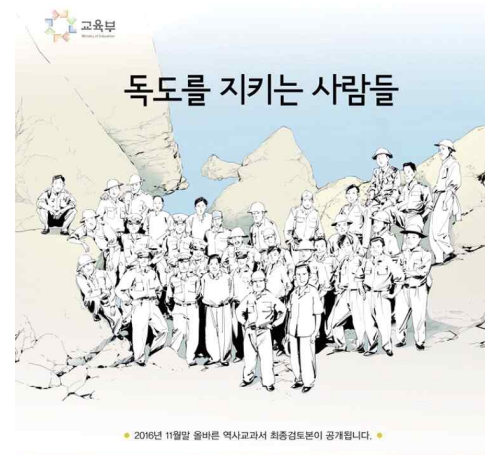
울릉도의 부속 도서인 독도를 외부 세력의 침범이나 위협으로부터 수호하여 국토를 보존하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 경찰 조직

1954년 7월 28일 독도의용수비대로부터 독도 경비 업무를 인수받아 경비 업무를 시작하였다. 독도 경비 보강을 위해 울릉경찰서 소속 독도경비대와 울릉도 경비를 전담하고 있는 318전경대와 통합하여 1996년 6월 27일 창설한 울릉 경비대 예하에 독도경비대를 두고 울릉경찰서장 책임 아래 운영되고 있다. 독도경비대 활동 사항은 1개 소대 규모의 병력이 독도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 순시선 등 외부 세력의 독도 침범에 대비하여 첨단 과학 장비를 이용하여 24시간 경비하고 있다.

현재 독도를 지키고 있는 독도 경비대는 경찰이다. 독도 경비대는 40명 정도인데, 2개월마다 교대로 독도에서 근무한다. 그런데 독도를 군인이 아닌 경찰이 지키는 까닭은 무엇일까? 군인은 국경이나 분쟁 지역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만약 군인이 독도를 지키면 독도를 두고 일본과 우리나라가 싸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독도는 분명한 우리 땅이기 때문에 경찰이 지키는 것이다.

독도경비대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서 국토방위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여가 시간에는 텔레비전 시청, 인터넷 및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며, 국회 도서관 분관이 설치되어 있어 책을 빌려 읽을 수도 있다.

독도를 지키는 사람들 만화



수리 팟 독도 이야기 제 4호

2018년 6월 29일 화요일

발행처 신서고 하누리

